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교교육과 교사

임철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뉴 노멀의 가능성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 즉 코로나 전염병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담론을 다 집어삼키는 형국이다. 경제, 산업, 의료, 스포츠 등 분야를 막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 긍정적 기대와 부정적 불안이 겹치고 있다.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의 학교 교육 체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안에서 교사는 또 어떤 변화에 직면할 것인가? 여러 질문들이 제기되고, 가능한 답들이 모색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 교육의 모습은 이론적으로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다. 하나는 기존의 노멀(normal) 즉 관행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것이다. 교육은 계속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교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몇 개월에 걸쳐서 총체적으로 경험한 온라인, 비대면, 원격교육은 새로운 관행 (new normal)까지 이르지 못하는 못하게 된다. 온라인 교육은 기존의 관행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머물러 있게 된다. 직접 만나서 교육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흐름이 대세가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또 하나의 이론적 가능성은 온라인 교육이 뉴 노멀 즉 대안적 교육의 한 가지 형태로 자리 잡는 과정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이란, 학교라는 공간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교사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비록 디지털 교과서, 사이버 가정학습, 이러닝, 엠러닝(M-learning: mobile learning), 유러닝(U-learning: ubiquitous learning), 방송 중·고등학교 등 온라인 교육의 여러 형태가 학교 교육 주변에서 제안되었지만, 온라인 교

육은 여전히 보조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학교 교육 방식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학교가, 교사가, 학생들이, 그리고 학부모와 전 국민이 완전히 역전된 교육 사태를 경험하게 되었다.

고무적인 것은 비록 문제와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 등을 통한 교육과 학습이 나름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 되네”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노멀이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대부분의 사람이 체험하게 된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기존 교육 체제가 나름대로 대비하여 온 점, 현장 교사들이 순발력 있게 대처한 점 등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초중등 온라인 교육에 대한 실제적 지원의 책임을 맡고 있었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클라우드 기반 온라인 시스템을 작년에 구축한 것을 들 수 있다. 만약에 이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하루 300만 명 정도의 접속 수요에 대한 대응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또 하나는 현장 교사들이 효과적인 대처를 하였다는 점이다. 교실에 학생들이 없는 상황에서 대안적 교육이 요구되었고, 교사들은 기존의 연수 등을 통하여 준비된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동영상 강의 자료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상호 공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시간 강의를 위한 다양한 에듀테크(educational technology)를 활용하여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교사들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었다.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만을 고집하지 않은 온라인 교육의 가능성이 확인된 순간을 경험한 것이다.

온라인 교육의 독자적 기능

그러나 온라인, 비대면 교육이 교육의 뉴 노멀 (new normal)이 되는 데에는 여전히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많다. 무엇보다도 **온라인 교육이 면대면, 오프라인 교육의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는 기존의 인식을 넘어서야 한다.** 코로나 이후 교육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존 교육 체제가 최선이고 코로나 기간의 교육은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기본적으로 교사가 교실 내에서 학생과 마주하는 상태에서 교육을 제공하되, 이번 사태와 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생각은 코로나 이전과 같은 사회 체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과 온라인 교육은 멀리 떨어

져 있어서 원격으로 밖에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전제가 유지될 수 있을까?

이번에 경험하고 있는 비대면 교육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우편통신을 활용하는 원격교육’은 일찍이 1840년대 영국에서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임철일, 2011). 원격교육의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이유는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들에게도 교육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교육 원칙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이런 정신에 충실한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 교육 수요의 팽창기에 대학 학위에 대한 성인 학습자의 요구에 대응하여 발전하여 왔다. 그 동안 초중고등학교에도 이러한 수요가 있었지만, 원격교육보다는 학교를 최대한 많이 설립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왔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발생한 원격교육은 이런 상황과 다르다. 교사와 학생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가까이 있어도 직접 대면을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원격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태 즉 대면하기 어려운 형편은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과거와 다른 온라인 형태 원격교육 발생의 또 다른 이유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 경험을 통하여 적지 않은 교사들과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예컨대, 몇몇 학생들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 보다 집중하면서 공부를 하거나, 자기주도적인 학습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의견을 보였다. 다수의 교사들은 어떤 식으로 수업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즉 수업설계를 어느 때보다도 많이 하였다거나, 개별 학생들과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해졌다고 한다(이은상, 2020). 온라인 교육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나름의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점이 일거에 알려진 것이다. 온라인 교육이 면대면, 오프라인 교육의 보조적인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나름의 독자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시작된 것이다.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의 가능성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이 새롭게 나타나면, 온라인 교육이 바로 뉴 노멀이 되는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뉴 노멀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오프라인 교육에서 중요하게 추구한 교육적 가치나 방식을 온라인

교육에서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상호작용성의 확보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 간의 상호작용성은 매우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이다. 이 원칙이 이번 온라인 교육에서는 제대로 구현되었는가? 갑작스럽게 온라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당연하게 예상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교육부 공식 조사에서도 상호작용성은 매우 낮게 나왔다(황대준, 2020). 온라인 수업의 세 가지 유형 중 상호작용성이 드러날 수 있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2%에 그치고 있으며, 대부분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40.9%), 과제수행 중심 수업(10.6%), 혼합형 수업(43.3%) 형태를 보여주었다. 혼합형 수업의 경우 과제 수행과 콘텐츠 활용 수업이 82.1%에 이르며, 콘텐츠 활용과 실시간 쌍방향 수업 혹은 과제 수행과 쌍방향 수업은 각각 7.1% 및 3.9%에 그치고 있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상호작용성이 제대로 반영된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비록 이번 온라인 교육 상황에서 국가는 EBS의 온클래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e-학습터와 같은 시스템 및 콘텐츠 준비를 하고 개별 교사들은 순발력 있게 각종 수업용 동영상 자료를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였지만 거기까지였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교실 수업에서 그나마 있었던 질문, 참여와 같은 상호작용을 온라인에서는 제대로 경험하지 어려웠다. 이 점은 한 사설 교육기관이 수행한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드러나 있다. 고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온라인 수업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26.7%에 그치고 있다. 3학년의 경우는 18.01%로 더 낮게 나왔다. 추정하건대 일반 교실 수업에서 경험하였던 상호작용성을 포함한 실재성을 제대로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온라인 수업에 대하여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학생들의 반응 또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동영상 자료를 보기는 하지만, 정말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심스러워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일방적 듣기를 요구하는 설명식 강의 자료의 한계를 부모들이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이번 온라인 교육에서는 상호작용적 수업 혹은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수업은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기술적 지원과 같이 가는 온라인 교육

다른 한편, 온라인 교육은 관련된 기술적 지원이 제대로 뒤따를 때만이 충실하게 구현될 수 있다. 이번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매우 전문적인 용어 하나가 일선 교육 현장에서 통용되었다. ‘교육용 플랫폼’(platform)이 바로 그것이다. 학습관리체제(learning management system)로 통상 불리어졌던 교육용 플랫폼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e학습터, EBS의 온클래스와 같은 공공 기관의 플랫폼과 Google의 Classroom과 같은 기업의 플랫폼이 교사와 학생 사이에 전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학교, 교실, 칠판 대신에 교육용 플랫폼이 중요한 교육적 매개체 역할을 한 것이다. 교육용 플랫폼은 온라인 상에서 학습자 출석 확인과 같은 기능 이외에도 온라인 교육 자료의 탑재 및 관리, 온라인 토론방과 같이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기능 등 온라인 교육을 위해 효과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매우 필수적인 도구이다(임철일 외 4인, 2017). 대학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활용되면서 기존 오프라인 교육을 지원하거나, 사이버 대학 운영에 있어서 핵심 기능을 차지하여 왔다. 상대적으로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물리적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교육이 여전히 자연스럽게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이번 비대면 상황이 생기면서 부랴부랴 교육용 플랫폼을 전격적으로 이용하게 되었으나, 여기저기서 학교 상황에 맞지 않거나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교사의 지적이 나타났다(계보경, 2020).

온라인 교육이 지금까지 인식된 필요성과 불가피성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교육에 비하여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프라인 교육과 같은 교육의 관리 혹은 지원 기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예컨대, 학생이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를 오프라인 교육처럼 쉽게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기존의 라디오, 방송 수업을 통한 원격교육 그리고 일방향의 동영상 제공 방식의 이러닝이 이러한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원격교육 학습자의 학습 상황을 다양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 상호간의 대화와 토론 등이 교육용 플랫폼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Zoom과 같은 원격화상회의 시스템이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도구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몇 년 전부터 미래 대학 혁신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는 미네르바 스쿨(Minerva School)이 활용하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 지원 플랫폼과 유사한 플랫폼이 이제는 많은 대학과 일부 초중고에서 손쉽게 활용되고 있다. 기존 오프라인 교육과 거의 유사하

거나 더 풍부한 기술적 환경과 도구를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이 우리 안에 벌써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적 변화와 발전을 사회가, 교육이, 교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것인가이다.

결론을 대신하며

원격교육 혹은 온라인 교육은 역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다수의 학습자를 위한 교육 기회 제공의 관점에서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다보니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육이 노멀 혹은 관행으로 자리해왔으며, 온라인 교육은 대체로 보조적인 혹은 아류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4차 산업 혁명 대비 차원에서 이러닝 혹은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지만 여전히 보조적인 수준에 그쳐있었다. 그러던 중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초중고에서부터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온라인 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최근에는 온라인 교육도 하나의 노멀이 될 수 있지 않은가에 대한 논의가 막 시작되고 있다. 교육은 결국 특정 사회의 상황과 맥락 혹은 역사적 발전과 분리되어 논의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새로운 노멀의 온라인 교육도 이 시대의 산물이다. 만약에 이런 성격의 사회가 지속된다면 이제는 기존 교육에 대한 관점, 즉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의 구분 혹은 온라인 교육 가능성에 대한 회의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

이 변화의 중심에 학교와 교사가 있다. 기존 오프라인 교육에서 구현하려고 했던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기술적 발전은 이미 넘쳐나고 있다. 다행히도 온라인 상에서 어떻게 학습자의 의미 있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많은 국내외 선행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이를 토대로 기존의 관습과 실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온라인 상에서 질문을 통하여 개별 학생들의 인지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많은 교사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워크숍, 연수, 커뮤니티 활동 등이 요구된다. 교사들 또한 새로운 기술적 변화를 교육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줄 아는 역량을 길러야 할 것이다. 예컨대 동영상 강의 자료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육용 플랫폼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상호작용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교사 역량이 필요하다.

온라인 교육이 뉴 노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도전적 과제가 주어져 있다.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에서 구현하기 힘든 것을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새로운 교육의 노멀이 구축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참고문헌

- 계보경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의 뉴 노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미래 교육혁신센터 제1차 미래교육 학술포럼 자료집.
- 임철일 (2011). 원격교육과 사이버교육 활용의 이해. 파주: 교육과학사.
- 임철일, 한형종, 정다운, Yunus Emre Ozturk, 홍정현. (2017). 학습 설계를 지원하는 이러닝 플랫폼 프로토타입 탐색 연구. 교육공학연구, 33(4). 799-837.
- 임철일 외 6인 (2020). 비대면 수업 설계 전략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교육학회 춘계 연차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 이은상 (2020). 현장의 원격교육 경험과 미래학교 확산을 위한 제언. 한국형 원격교육 중장기 정책방향 토론회 자료집.
- 황대준 (2020). 한국형 원격교육 발전 전략. Post-코로나19 시대, 한국형 원격교육 중장기 정책방향 토론회 자료집.